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 보 람** · 주 희 선***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콩쿠르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콩쿠르에 참가한 초등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술형 문항을 통해 콩쿠르 전후로 학생들의 인식 변화 또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사전평균-3.48, 사후 평균-3.64)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은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상을 하지 못한 그룹의 경우 자기효능감 사후 평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콩쿠르에 대한 인식 또한 수상여부, 수상순위, 부담감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상승 등 콩쿠르의 긍정적 효과와 이와 반대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주제어: 음악 콩쿠르, 자기효능감, 음악적 자기효능감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음악적 자기효능감
 - 2. 음악 콩쿠르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측정도구
 - 3. 분석방법
 - IV. 연구결과
 - 1.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2. 음악 콩쿠르에 대한 인식 변화
 - 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본 논문은 2014년도 김보람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박사과정

***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교수 / 교신저자

I. 서론

21세기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시대이다. 현대인들은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일상과 생각을 남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 같은 현상이 바로 자기표현의 시대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기표현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고취시킨다. 자기표현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박경묵, 방혜영, 2006; 정휴필, 2003; 최경희, 2004).

음악 활동 중 특히 연주는 대표적인 자기표현 활동으로서 연주자의 내면과 사상, 성격 등이 표현되며 이 같은 활동은 자기구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이홍수, 1990). 음악에서 자기효능감은 음악 활동 및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지현, 2009). 이러한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여러 음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잠재 능력을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형성된다(정진원, 2009).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취경험으로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강력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가능한 많은 성취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아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성취경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훗날 이어지는 모든 교육에서 긍정적인 학습 태도와 높은 성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박광선, 2003; 최경희, 2004). 그러므로 초등학생 시기에 연주회나 발표회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는 것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초등학생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음악 활동으로 연주회나 발표회 이외에도 음악 콩쿠르 참가를 들 수 있다. 연주회나 발표회와 마찬가지로 음악 콩쿠르는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감성을 대중 앞에서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연주 실력을 관객이나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음악적 경험이다. 이러한 음악 콩쿠르는 연주회나 발표회와는 달리 ‘수상’의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콩쿠르의 특성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이론을 적용한 수업이나 발표회와 같은 음악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지현, 2009; 오한숙, 2012; 이지연, 2011). 또한 음악 콩쿠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콩쿠르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적 효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복요한, 2010; 손혜숙, 1980; 안수진, 2004). 그러나 ‘수상’의 특성을 지닌 음악 콩쿠르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 콩쿠르 참가는 많은 음악 학습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지만 수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음악 콩쿠르와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신중히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콩쿠르 참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콩쿠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연구를 통하여 참가 전후 연구 대상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악 콩쿠르 참가가 그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사후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콩쿠르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은 참가자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이 같은 영향은 변인(참가횟수, 수상여부, 수상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음악 콩쿠르 참가자들은 참가 전과 후에 어떠한 인식 변화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77).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바탕으로 박지현(2009)은 음악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믿음을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부문에서 나타나는 음악 활동이나 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의 네 가지

근원으로부터 형성되며, 그 중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네 가지 근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요소들에 가중치를 두거나 통합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andura, 1997). 이를 음악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음악 활동이나 과제에서의 성취경험은 긍정적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음악적 수준이 비슷한 또래가 성공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음악 활동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 연주자의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 등도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두라(A. Bandura)의 이론에 기초한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로 구성된다. 이에 음악적 자기효능감에서 자신감은 자신의 음악적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말하며 자기조절효능감은 음악 활동이나 과제의 목표 달성에 있어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고 과제난이도선호는 음악 학습 및 과제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박지현, 2009).

본 연구에서 자신감은 음악 콩쿠르에서 연주를 잘할 수 있다는 개인의 확신이나 신념의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조절효능감은 콩쿠르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콩쿠르를 준비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또는 학습한 내용 중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와 같은 메타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과제난이도선호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어떠한 과제를 선택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콩쿠르 곡을 선택함에 있어 높은 난이도의 곡을 선택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콩쿠르 곡을 연습함에 있어 연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부분을 더 연습하거나 평소보다 어려운 방식의 연습이라도 선호하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과제난이도선호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콩쿠르 자체의 수준이나 난이도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하위요인을 종합하자면,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 활동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자기관찰이나 자기평가 등과 같은 자기조절 기제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높은 난이도의 음악 과제를 선호할수록 높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박지현(200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음악적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지연(2011)은 성악 발표회를 통한 연주경험이 초등학교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음악적 경험이 음악

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박지현(2009)의 연구결과를 입증하였다. 오한숙(2012)은 통합적 음악학습(CMLS)을 적용한 국악 수업이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음악적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향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음악적 경험과는 달리 음악 콩쿠르는 ‘수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학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음악 콩쿠르

음악 콩쿠르는 영어로 musical contest 또는 competition in music, 불어로 concours de musique라 하며 심사위원이 규정에 따라서 콩쿠르 참가자의 음악적 기능을 심사하여 뛰어난 사람을 표창하는 제도이다(복요한, 2010;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1986).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경기에서 기원한 음악 콩쿠르는 19세기에 경쟁을 통해 예술가들이 가진 재능과 기능의 우열을 평가하여 보다 우수한 사람을 발굴하고 표창하는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음악 콩쿠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직화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 1996).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조선일보가 주최한 ‘전국남녀현상콩쿠르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음악 콩쿠르들이 등장하였다. 1900년대 이후 음악 교육이 점차 보편화 되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음악 관련 단체들이 음악 콩쿠르를 만들었고 오늘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복요한, 2010). 이러한 음악 콩쿠르는 개인의 음악 실력을 향상시키고 연주 경험을 쌓게 해주며 경쟁의식으로 인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신장시킨다(손혜숙, 1980). 또한 음악 콩쿠르는 참가자 자신의 음악적 잠재력을 파악하게 하는 장(場)이 되며 자신의 감성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시대에 음악 콩쿠르는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며 음악 콩쿠르에서 제공하는 성취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다.

음악 콩쿠르는 다른 음악적 경험들과는 달리 ‘수상’의 특성을 지닌다. 콩쿠르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참가자의 연주를 점수화하고 이 점수에 따라 등수와 상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러한 상의 종류는 콩쿠르마다 차이가 있다. 특정 기준에 따라 점수와 등수가 매겨지고 그에 따라 수상을 하는 음악 콩쿠르의 특성으로 인해 음

악 콩쿠르는 또한 ‘경쟁’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경쟁은 양면성을 지닌다. 경쟁을 학습 동기와 그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반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경쟁이 가져다주는 교육적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콩쿠르가 지닌 경쟁의 특성을 학생의 음악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경쟁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상과 경쟁의 특징을 지닌 음악 콩쿠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음악적 성취와 음악성을 여러 청중과 심사위원 앞에서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만이 가져다주는 심미적 음악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압박감과 긴장감이 고조된 콩쿠르 무대에서의 성공적인 연주 경험은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음악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음악적 경험이 될 수 있다(안수진, 2004). 한편 음악 콩쿠르에 참가하는 것이 음악 학습의 동기가 될 수 있는데 콩쿠르에서의 타인과의 경쟁, 순위나 상금, 특전과 같은 부상은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 그들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조운선, 2010). 이 외에도 콩쿠르는 참가자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성취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참가자들은 자신과 음악적 수준이 비슷한 또래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김보나, 2009).

그러나 음악 콩쿠르가 항상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콩쿠르 곡의 수준이나 콩쿠르의 난이도가 자신의 수준보다 너무 높을 경우 학습에 대한 동기가 낮아질 수도 있으며 콩쿠르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콩쿠르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 실패감, 좌절감, 무력감, 연주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성진희, 1988). 따라서 콩쿠르를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의 음악 수준에 적합한 곡과 콩쿠르를 선별하여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콩쿠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것의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되새겨 음악 콩쿠르가 학생에게 유익한 음악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 콩쿠르와 관련된 연구(복요한, 2010; 손혜숙, 1980; 안수진, 2004)에서는 모두 국내에서 개최되는 콩쿠르를 바탕으로 음악 콩쿠르에 대한 인식 및 음악 콩쿠르의 교육적 효과와 그 활용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음악 콩쿠르 참가에 대한 사전-사후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따라서 콩쿠르 참가 전후로 참가자의 변화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음악 콩쿠르 참가 전후로 참가자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콩쿠르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리는 A 음악 콩쿠르에 참가한 200명의 학생들이다. A 음악 콩쿠르는 안산에서 1996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콩쿠르 중 가장 대표적인 콩쿠르이다. 주최 측을 통하여 알아본 콩쿠르 참가 인원 규모는 각 악기별 참가자를 통틀어 약 500명 정도로 안산시에 소재하는 100여개의 음악 학원에서 매년 꾸준히 원생들을 참가시키고 있다. 이 콩쿠르에서는 참가인원의 약 10%에게 대상 및 특상을 장학금과 함께 수여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의 50%에게 그 외의 상(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전공하려는 소수의 특출한 초등학교생들이 아니라 취미나 특기 활동으로 학원·개인 교습을 통해 음악을 배우는 일반적인 초등학교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A 콩쿠르보다 높은 연주력을 요구하며 수상을 위해 더 경쟁을 해야 하는 많은 콩쿠르들이 있지만 음악 학습을 하는 일반적인 초등학교생을 모집단으로 하는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A 음악 콩쿠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여 20년 이상 지속해 온 음악 콩쿠르이며 지역사회, 특히 음악 학원에서 가장 대중적인 콩쿠르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연구대상의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에 소재한 42개의 음악학원을 선정하여 각 학원의 원장들과 면담 혹은 통화를 시도하였다. 원장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검사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고 각 학원의 학생들 중 A 콩쿠르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장들은 설문지 문항을 검토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들의 정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콩쿠르에 참가했던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설문이 가능하다고 응답해주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취지와 검사 수행 방식을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사전-사후 설문은 각각 콩쿠르 전후 2주 간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각 음악학원을 방문하여 배포 및 수거하였다. 이렇게 수거된 200부의 설문지 중 응답 상태가 좋지 않은 1부를 제외한 총 199부(남: 56명, 여: 143명)를 연구 자료로 삼았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성별				총	
	남자		여자			
학년	N	%	N	%	N	%
1	9	37.5	15	62.5	24	12.1
2	10	23.8	32	76.2	42	21.1
3	15	27.3	40	72.7	55	27.6
4	12	36.4	21	63.6	33	16.6
5	8	27.6	21	72.4	29	14.6
6	2	12.5	14	87.5	16	8.0
총	56	28.1	143	71.9	199	100

2. 측정도구

음악적 자기효능감 검사 도구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 및 타당화 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척도’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6개 문항 중 음악적 자기효능감 검사에 적용 가능한 문항을 선별하고 연구 목적에 맞게 음악적 자기효능감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의 일부 단어를 쉬운 단어로 수정하였으며 콩쿠르 전후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지에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문항 모두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각각 7문항, 과제난이도선호 6문항으로 사전-사후 검사 모두 총 20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음악적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음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전체 문항과 각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문항에 대해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의 사후 신뢰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의 사전-

사후 Cronbach's α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의 사후 Cronbach's α 값이 .676으로 나타났으나 Cronbach's α 값이 0.6이상 0.7이하일 때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코르티나(Cortina, J.M., 1993), 조지와 맬러리(George, D., & Mallery, P., 2003), 클라인(Kline, P., 2000)의 신뢰도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내적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역채점 문항이 들어가 있음에도 이러한 내적신뢰도가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설문 응답의 결과 또한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음악적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의 신뢰도

음악적 자기효능감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사전	사후
자신감	1*, 2*, 3*, 4*, 5*, 6, 7	7	.763	.676
자기조절효능감	8, 9, 10, 11, 12, 13, 14	7	.826	.797
과제난이도선호	15, 16, 17, 18*, 19*, 20	6	.848	.837
총		20	.896	.878

*역채점 문항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A 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음악 콩쿠르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모든 분석 단계에서 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수상여부에 따라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의(사후-사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참가횟수 및 수상순위에 따라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사후-사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서술형 응답의 경우 콩쿠르 전후로 응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빈도분석 및 집단별 사전-사후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콩쿠르 전후로 콩쿠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고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 음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초등학교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콩쿠르 참여 전후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검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 평균은 3.48, 사후 평균은 3.64로 음악 콩쿠르 참가 후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평균이 0.16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67, p<.01$). 한편 음악 콩쿠르 참가 이후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감($t=-1.67, p<.05$)과 자기조절효능감($t=-3.49, p<.01$)에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과제난이도선호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27, p>.05$).

요약하면,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초등학교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서는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만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음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N	M	SD	t
음악적 자기효능감		사전	199	3.48	0.64	-2.67**
		사후	199	3.64	0.54	
	자신감	사전	199	3.68	0.68	-1.67*
		사후	199	3.79	0.56	
하위 요인	자기조절효능감	사전	199	3.37	0.70	-3.49**
		사후	199	3.60	0.58	
	과제난이도선호	사전	199	3.46	0.91	-1.27
		사후	199	3.57	0.81	

* $p<.05$, ** $p<.01$

2) 변인별 음악적 자기효능감 효과

(1) 참가횟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콩쿠르 참가횟수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

해 집단-0(콩쿠르 참가가 처음인 집단), 집단-1(이전에 콩쿠르 참가 경험이 1번 있는 집단), 집단-2(이전에 콩쿠르 참가 경험이 2번 있는 집단)로 나누어 사후 평균에서 사전 평균을 뺀 값(이하 사후-사전 평균)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참가횟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 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콩쿠르에 참가한 경험이 많을수록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39, p>.05$). 또한 참가횟수가 많을수록 자신감($F=.05, p>.05$)과 자기조절효능감($F=.39, p>.05$)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4> 참가횟수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 효과 비교

		집단	N	(사후-사전) M	SD	F
음악적 자기효능감		0	104	0.11	0.81	.39
		1	67	0.20	0.90	
		2	28	0.24	0.81	
자신감		0	104	0.09	0.85	.05
		1	67	0.11	0.93	
		2	28	0.15	0.84	
하위 요인	자기조절효능감	0	104	0.18	0.87	.39
		1	67	0.24	0.94	
		2	28	0.35	0.95	
과제난이도선호		0	104	-0.07	1.18	2.50
		1	67	0.32	1.22	
		2	28	0.29	1.22	

(2) 수상여부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수상여부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수상을 한 집단의 (사후-사전) 평균(0.30)이 수상을 하지 못한 집단의 (사후-사전) 평균(-0.20)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4.00, p<.001$). 또한 자신감($t=-3.10, p<.01$)과 자기조절효능감($t=1.99, p<.05$)에서 수상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과제난이도선호에서는 수상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4.67, p>.05$).

한편 수상을 하지 못한 집단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사후-사전) 평균(-0.20)이 음수(-)로 나타났으며 음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서도 자기조절효능감을 제외한 자신감(-0.19)과 과제난이도선호(-0.49)의 (사후-사전) 평균이 음수(-)로 나타났다. 이에 콩쿠르 참여 후 수상을 하지 못한 집단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다소 낮아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으며 하위요인 중 특히 자신감과 과제난이도선호 부분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수상여부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수상여부	N	(사후-사전) M	SD	t
음악적 자기효능감		비수상	56	-0.20	0.75	-4.00***
		수상	143	0.30	0.82	
하위 요인	자신감	비수상	56	-0.19	0.75	-3.10**
		수상	143	0.23	0.88	
	자기조절효능감	비수상	56	0.02	0.82	-1.99*
		수상	143	0.31	0.92	
	과제난이도선호	비수상	56	-0.49	1.12	-4.67
		수상	143	0.35	1.16	

* $p < .05$, ** $p < .01$, *** $p < .001$

(3) 수상순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수상순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상순위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85.6%)이 피아노 부문으로 콩쿠르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수상과 수상 학생의 비율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모두 각각 30%(비수상), 70%(수상)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본 수를 고려해 집단-0(비수상), 집단-1(장려상과 우수상), 집단-2(최우수상), 집단-3(특상), 집단-4(준대상, 대상)의 다섯 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수상순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후-사전) 평균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수상순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향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62$, $p < .01$). 음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수상순위가 높을수록 모든 하위요인의 향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자신감($F=5.72$, $p < .001$)과 과제난이도선호($F=6.09$,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22, p>.05$).

<표 6> 수상순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비교

		집단	N	(사후-사전) M	SD	F
음악적 자기효능감		0	56	-0.21	0.75	6.62**
		1	21	0.22	0.71	
		2	60	0.14	0.77	
		3	47	0.38	0.83	
		4	15	0.83	1.01	
자신감		0	56	-0.19	0.76	5.72**
		1	21	0.13	0.92	
		2	60	0.11	0.87	
		3	47	0.21	0.80	
		4	15	1.04	0.90	
하위 요인	자기조절효능감	0	56	0.03	0.83	2.22
		1	21	0.23	0.68	
		2	60	0.16	1.03	
		3	47	0.42	0.94	
		4	15	0.69	0.57	
과제난이도선호		0	56	-0.49	1.12	6.09**
		1	21	0.27	1.17	
		2	60	0.21	1.07	
		3	47	0.49	1.24	
		4	15	0.64	1.29	

** $p<.01$

2. 음악 콩쿠르에 대한 인식 변화

1) 서술형 응답의 빈도분석 결과

음악 콩쿠르 전후로 아이들의 인식 변화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서술형 응답 중 어느 하나라도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총 52명의 응답이 채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술형 문항에서의 사전-사후 응답 변화에 따라 집단-1(긍정적 응답-긍정적 응답), 집단-2(긍정적 응답-부정적 응답), 집단-3(부정적 응답-긍정적 응답), 집단-4(부정적 응답-부정적 응답)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7>은 서술형 응답의 집단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1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응답자의 46.2%가 콩쿠르 참가 전후 모두 콩쿠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집단-3으로 응답자의 26.9%가 콩쿠르 전에는 콩쿠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콩쿠르 이후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빈도로 나타난 집단-2(13.5%)와 집단-4(13.5%)는 각각 사전에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콩쿠르 경험 이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서술형 응답의 집단별 분포도

집단	N	%
1 (긍정-긍정)	24	46.2
2 (긍정-부정)	7	13.5
3 (부정-긍정)	14	26.9
4 (부정-부정)	7	13.5
총	52	100'

2) 서술형 문항의 집단별 사전-사후 응답 결과

서술형 문항의 결과를 사전-사후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집단-1(긍정적 인식-긍정적 인식), 집단-2(긍정적 인식-부정적 인식), 집단-3(부정적 인식-긍정적 인식), 집단-4(부정적 인식-부정적 인식)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8>은 서술형 문항의 집단별 사전-사후 응답 결과에 대한 것으로 각 응답을 1:1 매치하였으며 사전-사후 응답 유형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응답은 <표 8>에서 제외하였다.

집단-1의 경우, 콩쿠르 전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집단으로 ‘콩쿠르가 즐거운 경험일 것 같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등의 응답을 하였다. 콩쿠르 이후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며 다음 콩쿠르에서는 좀 더 높은 상을 받고 싶다는 등의 응답을 하였다.

집단-2의 응답을 살펴보면 콩쿠르 전에는 ‘연습을 통해 점점 실력이 좋아진다’, ‘좋은 상을 받고 싶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콩쿠르 이후 ‘많이 떨렸고 상을 받지 못해 실망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집단-2의 경우 콩쿠르 전에는 콩쿠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콩쿠르 이후 콩쿠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단-3에서는 콩쿠르 전 ‘콩쿠르에서 실수할 것 같다’, ‘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

정 된다’와 같은 응답을 보였으나 콩쿠르 이후에는 ‘다음 콩쿠르에서는 더 좋은 상을 받고 싶다’거나 ‘다음에도 콩쿠르에 나가고 싶다’ 또는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높아졌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집단-3의 경우 콩쿠르에 나가기 전에는 콩쿠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콩쿠르 이후 콩쿠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단-4의 경우, 콩쿠르 실시 전 교사의 부정적인 교수법, 부모님의 강요 및 기대 등으로 힘들며 떨리고 긴장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콩쿠르 이후 상을 받지 못해 기분이 좋지 않으며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마음이 편해졌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집단-4에서는 콩쿠르 전후 모두 콩쿠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서술형 문항의 사전-사후 응답 결과 : 집단별

집단	사전	사후
1	• 즐거운 경험인 것 같고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다음 콩쿠르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곡으로 준비해서 높은 상을 받고 싶다.
	•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나가고 싶다.
	•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으면 엄마가 좋아 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다.
	• 나는 콩쿠르에서 침착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 부모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두 배로 기분이 좋았다.
	• 암보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생겨서 좋다.	•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연주하는 곡을 들려주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 콩쿠르를 위해 지금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할 것이다.	• 내가 좀 더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2	•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을 타면 좋을 거 같다.	• 많이 떨렸고 실수를 많이 했다. 좋은 상을 못 받아 실망했다.
	• 많이 연습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된다.	• 대상을 못 받아서 기분이 매우 안 좋다.
	• 콩쿠르에 나갈 생각을 하니 설렌다.	• 많이 떨렸고 다시는 콩쿠르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 콩쿠르 날짜가 다가오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다.

집단	사전	사후
3	• 콩쿠르에서 실수할 것 같다.	• 다음에는 어려운 곡으로 준비하여 좋은 상을 받고 싶다.
	• 대회에 나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긴장된다.	• 다음에도 콩쿠르에 나가고 싶다.
	• 콩쿠르를 생각하면 너무 떨리고 손에 땀에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며 손도 심장처럼 벌렁거린다.	•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
	• 콩쿠르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	• 다음 콩쿠르에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상을 받고 싶다.
	• 콩쿠르 곡을 암보하는 것이 어렵고 틀릴까봐 걱정된다.	• 상을 받고 나니 자랑스러웠다.
4	• 상을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	•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이 되어 자신감이 높아졌다.
	•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힘들다.	• 상을 못 받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진짜 힘들었다.
	• 선생님이 화를 많이 내서 무섭다.	• 많이 떨렸다.
	• 부모님의 기대와 집착 때문에 부담된다.	•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서 좀 홀가분하다.
	• 떨리고 긴장된다.	• 스트레스가 사라져 마음이 좀 편하다.

3) 콩쿠르에 대한 인식의 요인

학생들이 콩쿠르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52명의 서술형 응답을 바탕으로 콩쿠르에 대한 인식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들 중 콩쿠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요인으로는 실력 향상, 자신감 향상, 즐거운 경험,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가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의 요인으로는 불안, 긴장, 걱정, 떨림, 힘듦 등의 스트레스,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 교사의 지도방법 등이 있었다.

콩쿠르 인식의 요인을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한 결과 사전 인식의 요인은 <표 9>에서와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32.7%)가 콩쿠르에 대한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콩쿠르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에 대한 기대감 및 부담감(21.2%), 자신감 향상(17.3%), 실력 향상(1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의 기대(5.8%)와 교사의 교수법(5.8%)이 부정적 인식의 요인이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9> 콩쿠르 인식의 요인 빈도분석 : 사전

인식의 요인	N	%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에 대한 기대감 및 부담감	11	21.2
실력 향상	7	13.5
자신감 향상	9	17.3
즐거운 경험	2	3.8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긴장, 걱정, 떨림, 힘듦)	17	32.7
부모님의 기대	3	5.8
교사의 교수법	3	5.8
총	52	100.0

콩쿠르 이후 콩쿠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42.3%)가 콩쿠르에 대한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콩쿠르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즐거운 경험(17.3%), 자신감 향상(11.5%),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함(9.6%), 불안, 긴장, 걱정, 떨림, 힘듦 등의 스트레스(7.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력 향상(5.8%), 콩쿠르가 더 하고 싶음(5.8%)의 반응도 적지만 콩쿠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콩쿠르 인식의 요인 빈도분석 : 사후

인식의 요인	N	%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 결과	22	42.3
실력 향상	3	5.8
자신감 향상	6	11.5
즐거운 경험	9	17.3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긴장, 걱정, 떨림, 힘듦)	4	7.7
콩쿠르가 더 하고 싶음	3	5.8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함	5	9.6
총	52	100.0

콩쿠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집단의 경우 그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인식이 변화한 총 21명의 서술형 응답을 바탕으로 콩쿠르 인식 변화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콩쿠르 사전-

사후 인식 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42.9%)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감 향상(23.8%), 불안, 긴장, 걱정, 떨림, 힘들 등의 스트레스(23.8%), 실력 향상 및 즐거운 경험(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콩쿠르 사전-사후 인식 변화의 주요 요인

인식 변화의 주요 요인	N	%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	9	42.9
자신감 향상	5	23.8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긴장, 걱정, 떨림, 힘들)	4	19.0
실력 향상 및 즐거운 경험	3	14.3
총	21	100.0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콩쿠르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콩쿠르에 참가한 199명을 대상으로 음악 콩쿠르 참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서술형 문항으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았다. 먼저 음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삼은 콩쿠르 참가횟수, 수상여부, 수상순위 중에서 참가횟수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상여부와 수상순위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연구대상 전체(n=199)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은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상여부에 따라 두 집단(수상, 비수상)으로 나누어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수상을 한 집단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수상을 하지 못한 집단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 전체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결과와 수

상여부에 따른 집단별 음악적 자기효능감 결과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유추한 바, 연구대상 전체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콩쿠르 후 향상되었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전체에서 비수상자보다 수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초등학교생 음악 학습자들이 많이 참가하는 콩쿠르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특성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콩쿠르의 효과를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수상여부, 순상순위 등의 변인에 모두 영향을 받는 하위요인은 자신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한 그룹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이 향상되어 콩쿠르 준비를 하면서 음악 연습의 메타인지적 향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세 가지 하위요인 중 과제난이도선호는 변인들 중 수상순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수상 그룹의 경우 과제난이도선호가 유의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콩쿠르의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상을 받았을 경우 과제난이도선호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반대로 기대보다 낮은 상을 받았거나 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향후 어려운 과제곡을 선택하거나 연습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과정을 즐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넷째, 서술형 응답 분석을 통해 조사한 학생들의 콩쿠르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에 따르면 사전·사후에 모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그룹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전에 부정적 인식이었으나 사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그룹이 많았다. 사후 검사에서 콩쿠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두 그룹은(긍정적-부정적/ 부정적-부정적) 네 개의 그룹 중 각각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섯째, 콩쿠르에 대한 인식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인식은 실력 향상, 자신감 향상, 즐거운 경험, 수상여부 및 수상순위에 기인하고 있었고 부정적인 인식은 수상여부 및 순위, 콩쿠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 교사의 부적절한 지도방법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었다. 사전·사후, 긍정·부정을 통틀어 콩쿠르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상여부와 수상순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감 향상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생들은 주로 음악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해 음악을 학습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음악적 경험은 학원에서 개최하는 연주회나 제자발표회, 그리고 음악 콩쿠르 참가이다.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초등학교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바 있다(박지현, 2009; 오한숙, 2012; 이지연, 2011). 본 연구의 결과 중 연구 대상 전체의 자기효능감 결과, 즉 음악 콩쿠르 참가경험이 초등학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 같은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취지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의 음악 콩쿠르를 대상으로 그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음악을 학습하는 초등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음악적 경험 중 하나로서 음악 콩쿠르 참가도 다른 음악적 경험과 유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본 연구의 이 같은 결과는 수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적인 콩쿠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경쟁이 더 치열하고 수상자의 비율이 낮은 콩쿠르의 경우 자기효능감 향상에 대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중 수상을 못한 집단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콩쿠르 참가 이후 하락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음악 콩쿠르의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나 콩쿠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 수상여부와 수상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수상여부와 수상순위는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하락, 콩쿠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즉 콩쿠르를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콩쿠르 준비를 통한 실력향상, 성공적인 무대 연주 경험과 함께 수상의 성취감을 갖게 되었을 경우 가장 크게 이루어지게 되나 반대로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자기효능감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시기에 확립된 자기효능감은 일생에 걸쳐 모든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갖고 이를 통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일은 향후의 음악 학습과 나아가 전반적인 학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부모들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음악 콩쿠르의 교육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여 신중하게 지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적인 초등학생 음악 학습자들이며 이에 따라 연구의 결과는 비전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국한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을 전공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콩쿠르 참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콩쿠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음악 전공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콩쿠르의 특성은 본 연구에서 다룬 콩쿠르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며 콩쿠르에 임하는 음악 전공자들의 마음가짐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콩쿠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음악교육현장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보나 (2009). 학생피아노콩쿠르의 실태조사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김보람 (2014). 음악 콩쿠르 참가 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박경묵, 방혜영 (2006).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회**, 13(2), 43-64.
- 박광선 (2003). 음악 활동이 초등학교 신입생의 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 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 분석. **음악교육공학**, 8, 153-167.
- 복요한 (2010). 음악콩쿠르가 아동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성진희 (1988). 음악콩쿠르 필수적인 제도인가. 월간객석, 65-101.
-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1986). **음악용어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 (1996).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손혜숙 (1980). 음악 콩쿨의 효능과 그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수진 (2004). 고교생 대상 음악 콩쿠르와 대학수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오한숙 (2012). 통합적 음악학습(CMLS)을 적용한 국악 수업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이지연 (2011). 성악 발표회를 통한 연주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홍수 (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정진원 (2009). 음악학습에 있어서의 동기의 중요성과 관련요소에 대한 이해. **예술교육연구**, 7(1), 77-92.
- 정후필 (2003). 자기표현 훈련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조운선 (2010).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유형별 현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경희 (2004). 놀이 중심의 자기표현 훈련이 초등학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rtina, J.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98-104.
- George, D., &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Allyn & Bacon.
- Kline, P. (2000).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London: Routledge. 13.

ABSTRACT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Music Competition on Musical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ram Kim · Heesun Ch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rticipating in music competitions on musical self-efficacy and to underst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music competition. Both pre-test and post-test for musical self-efficacy were conducted for 199 elementar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music competitions. In addition, the change of their perceptions of competition was surveyed by open-ended ques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ence of music competition positively influence on subjects' musical self-efficacy. Important variables for musical self-efficacy include whether to receive awards, levels of award, nervousness, and stress. The self efficacy of the group that received no award from the competition was declined after the competitions. These results represent that it is necessary to teach students with profound understanding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music competition.

Key words: music competition, self-efficacy, musical self-efficacy.

투고일: 2017년 2월 27일, 심사(수정): 4월 7일(4월 11일), 게재확정일: 4월 25일